

(참고 자료용)

****윤후정 교수의 여성학 개척의 발자취**

윤후정교수는 50년대 초반 젊은 법학도로서 **가족법의** 여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 사회 여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큰 초석을 놓았다. 윤후정 교수의 여성학 개척을 중요한 부분만을 간단히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60년대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지배적인 문제의식은 '**여성지위향상**'이란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윤후정 교수는 70년대 '**여성해방**', '**여성의 인간화**'라는 여성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작업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1974년도에 주최한 여성지도자 대화 모임에서 발표한 논문, 1975년 김활란 박사 5주기 기념논문집에서 잘 나타난다.

교내에서는 여성학연구위원회의 중심멤버로서 국내 최초로 '여성학'을 개설하는 준비작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는 1977년 학부 교양과목으로 여성학의 개설이다. 이어서 교무위원의 일원으로서 1982년 대학원 소속 여성학과를 설립했고, 또한 1990년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여성학 박사과정을 인가받고 설립하는데 윤후정교수가 대학원장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윤후정교수는 본교 여성학과에서 첫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젊은 학자들이 배출된 1984년에 창립된 한국 여성학회의 초대 학회장으로 추대되어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특히 학술지 <한국여성학>을 창간하여 여성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의욕을 돋우는데 단단한 기초를 다졌다.

윤후정교수의 여성학 연구는 한편으로는 법학자로서 <법여성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했다. 여기에서는 평등에 대한 법철학적인 해석과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노동과 가족등 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법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성들의 법개정운동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윤후정교수의 여성학연구는 그의 전공영역인 법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크게 뛰어넘는 학제적 연구로서 폭넓고 깊이있는 연구를 개척해 왔다는 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와 사상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미래의 여성상을 정립할 것인가하는 가치론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철학, 역사, 문화를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이화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발표

한 논문이 윤후정교수의 광활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논문에서 윤후정교수는 통합여성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여성론은 성별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거 권위적 체제하에서는 남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성별분업, 즉 성적 기능의 분화를 강조한 시기로서 성적 역할 분담이 고착되어 있지만 근래에 와서 권위적 체제가 약화되어 남녀의 역할 분화는 모호해지고 혼재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 때 새로운 사회로의 지향을 위하여 여성이 고정적인 역할 분담에서 벗어나 남성적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도전적 성격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쟁과 갈등은 역사발전 단계에서 통합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치는 과정이며 결국 창조적인 갈등이다.

통합적 여성상이란 통합적 남성상과도 통하는 개념으로서 의식과 가치면에서, 또한 능력과 기능의 측면에서도 공통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 전제의 바탕에서 차이와 분리를 강조한 과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즉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 모든 영역에서 남녀는 동반자적인 협동 보완관계를 지속하여 상호간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는 필연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합여성론은 현재 거칠 수 밖에 없는 많은 여성운동의 과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맞을 단계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윤후정교수의 여성학 이론은 여성운동가와의 교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학문과 교육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여성학과 여성 운동 전반에 선구적이고 총체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이대학보에 게재)

**여성해방운동과 윤후정박사

윤후정박사는 1970년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방향전환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여성운동의 이념과 이론정립, 여성의 자각과 조직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진취적 여성해방운동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사회에서 여성문제의 제기와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은 그 이전에 비하여 괄목할만큼 진전었다. 특히 1974년은 'UN여성의 해'를 한 해 앞두고, 여성문제의 본질적 접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중간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전개되었다. 윤후정박사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문제의 본질론'

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한국의 대표적 여성지도자 및 젊은 여성들에게 여성운동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의식화의 단초를 부여하였다.

즉 윤후정박사는 현재의 여성의 열등성은 생물학적 조직에 의해 운명지어진 것이 아닌 후천적 문화적인 것이며 사회구조적 산물임을 집요하게 논증하고 여성에 관한 '신화'들을 깨뜨려 나가는 운동의 필요성을 설파하여, 우리여성운동에 새로운 변화를 주게된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단지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서 현존질서내에서의 성차별의 완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이후는 현존질서와 문화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하는 운동으로의 방향이 정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1975년 'UN여성의 해'를 고비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윤박사는 국제사회에서의 여성문제 이론의 소개와 연구,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교육 등의 활동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결실의 일환으로 '크리찬아카데미 여성사회연구회'가 조직되고 윤박사는 이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당시 이 회의 회원이었던 여성들은 현재 우리나라 여성계의 참신하고 능력있는 운동가 내지 지도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윤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헌법학자로서 우리나라 헌법개정 때 마다 성차별제거를 위한 헌법상의 특별조항과 민주주의 및 인권향상을 제고하는 조항들의 채택을 위해 국회 헌법개정안 공청회, 여성단체들을 통한 토론회와 여성단체안(헌법 요구안)의 작성 등 입법활동에도 정열을 쏟았다. 그 결실의 하나가 1980년 개정헌법에 도입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조항이다.

(관련자료 및 약력참조)